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 호르몬 과다의 증상과 원인”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중독증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목에 있는 갑상선에서 많은 갑상선호르몬을 만들어 갑상선호르몬 과다에 의한 신체 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중독증의 증상

갑상선호르몬이 신체 거의 모든 조직 및 장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갑상선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갑상선호르몬이 많아지면 땀이 많이 나고, 더위를 참지 못하며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식욕이 증가하여 음식섭취가 늘어나지만 에너지 소모 또한 증가하여 체중이 감소합니다. 노인에서는 식욕 부진으로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에서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목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갑상선종이 나타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과민해지고 불안하며, 집중력이 저하되어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손발이 떨립니다.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고 과민반응을 보입니다. 맥박이 빨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숨이 차며 간혹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갑상선호르몬이 많아지면 장 운동이 증가하게 되어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약화되며 심한 경우 근무력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을 가진 남자에서 간혹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뼈의 칼슘 대사가 증가하여 뼈의 강도를 나타내는 골밀도 측정 시 골감소증 혹은 골다공증이 진단되기도 합니다. 신진대사의 증가로 체온이 증가하고 피부가 따듯하며 축축해지고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전에 없던 가려움증이 생기며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도 하나 대부분 일시적 현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호전되면 탈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 월경이 불규칙해지며 무월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지속되면 불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 성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정자 수가 감소되며 임신율이 낮아지고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일부 환자에서는 안구 증상을 나타내는 갑상선 안병증을 보입니다. 주로 그레이브스병에서 발생하며 눈이 부시고 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심한 경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눈이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의 부기가 심해지면 드물게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력 손실이 오기도 합니다.

갑상선중독증의 원인

갑상선중독증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하는 경우와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한 갑상선중독증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면역질환인 그레이브스병 - 가장 흔하다.
2. 임신 입덧, 임신성 갑상선중독증
3. 갑상선결절(종양)이 갑상선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경우
4. 약제에 의한 갑상선중독증 - 요오드나 아미오다론 등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하지 않은 갑상선중독증의 원인은

1.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갑상선호르몬 과다 섭취
 2. 아급성 갑상선염
 3. 무통성 혹은 산후 갑상선염 등 염증으로 갑상선조직이 파괴되어 갑상선호르몬이 쏟아져 나와 혈액 내 갑상선호르몬이 많아진 경우
- 등이 있습니다.